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랑 앞에서 물러설 것인가?

: M. 셸러의 사랑과 미움의 현상학

양 운 덕

1. 평강 공주의 온달 사랑?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에 본질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의 현상학은 사랑의 사건들 너머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사랑을 정의하는 대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현상들Phaenomenon'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사랑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현상들 위에 군림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추상 대신에 저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랑 현상들의 구체적인 존재방식, 구조를 (본질) 직관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사랑이 외부 원인들에서 비롯되는 기쁨이고, 미움은 외부 원인들에서 비롯되는 슬픔이라고 본다. (Spinoza, 3부 정리 13의 보충)1)

그렇다면 사랑에 따르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사랑, 자신의 능력potentia을 감소시키는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 춘향은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랑에 시달리면서도 왜 사랑에서 물러서지 않는가?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처럼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은" 경우에 여전히 기쁨과 슬픔의 이분법으로 사랑을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슬픈" 사랑은 자신의 자기 보존 욕망conatus을 배신하는 것인가?

평강 공주의 바보 온달에 대한 지혜로운 사랑, 사랑 대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만들려는 시도, 교육을 통해서 대상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사랑이라면.....아니면 반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사랑 대상이 지닌 모든 가치와 결점을 남김없이 조건 없이 껴안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악스럽고 위험한 비유(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를 내세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와 염려를 엄청나게 쏟았다는 이유로 정작 당사자는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집요한 공격을 퍼붓는 시도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랑,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나서 좋아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런 대상에 대한 사랑을 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인식을 위한 동기부여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인식을 윤곽 짓고 인식을 이끄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과 관련해서 막스 셸러의 사랑-미움의 현상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사랑-미움의 감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사랑-미움의 감정을 폄하하는 기존 사고에 맞서는 새로운 관점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살펴보자.

---

1) 기쁨은 정신이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슬픔은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을 가리킨다.

---

2. 사랑과 미움 새롭게 보기

가) 감정과 사랑의 긍정적 성격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이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가? 그러면 사랑-미움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이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완전성을 고양시키는가? 셸러는 이성이 감정에 대해서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위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철학사를 주도하는 사고틀은 감정이 혼란스럽고 불명료한 인식이라고 본다. (플라톤은 감각, 감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데아 인식의 길이라고 보고, 아퀴나스는 감정을 저급한 욕구나 추구 능력으로 보며,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감정을 혼란스럽고 불명료한 관념이라고 보고, 칸트는 감정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본다.) 셸러는 이런 사고 흐름을 수용하는 현대적 태도를 비판한다--"세계에 대한 모든 참된 인식은 감정적 작용을 억제하고 대상의 가치적 차이를 무시해야 한다." (조정옥, 37)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파스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감정이 맹목적이라는 편견을 거부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추구, 의지, 감정과 다른 작용으로 보고 사랑이 인식에 선행한다고 본다. 그는 주요감정인 고통, 기쁨, 불안, 욕구에서 감정의 방향은 의지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본다. 사랑의 일종인 관심이 사랑을, 사랑이 감각적 지각, 표상 인식 등 다른 모든 작용을 좌우하고, 인식이 감정 및 의지의 방향을 결정한다.2) 그는 세계관의 확장과 심화가 사랑의 심화와 확장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는 신의 본질이 사랑이며, 이데아는 신의 사고이고 사랑은 이데아에 앞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Scheler, 1970, 25-7)

파스칼은 감정을 이성이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고, 그것이 일종의 직관 능력으로서 직접적인 감각 지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본다. 감정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절대성을 갖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 셸러는 이런 파스칼의 사고를 수용해서 (귀와 청각이 색에 대해서 무지하듯이) 이성적 사고가 얻을 수 없는 대상 경험이 있

으며, 이런 경험에서 감정은 영원한 질서와 서열과 관계 맺는 참된 객관적 대상들의 가치를 파악한다고 본다. (Scheler, 1966, 260-1; 조정옥, 38)

셸러는 감정의 능동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감정이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부 원인에 의해서 침투당하는 수동적인 상태라고 보는 편견을 거부한다. 3)

셸러는 (스피노자나 칸트가 주장하듯이 수동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으로서의 지향적 감정이 있다고 본다. 상태적인 느낌은 느낀 내용, 느껴진 것Gefuehl이고, 지향적인 느낌은 느끼는 작용Fuehlen이다. 그는 느끼는 작용이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운동하는 점에 주목한다. 느끼는 작용은 대상이 나에게 주어지고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자아의 움직임이다. 자아는 이런 느끼는 작용으로 가치를 직관한다.

셸러는 사랑과 미움이 절대성, 선천성, 근원성에서 어떤 감정 작용도 따를 수 없는 최고 단계라고 본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서 출발해서 다른 가치들을 자발적으로 찾고 대상의 이상적 가치를 지향한다. (Scheler, 1966, 267; 조정옥, 39-40)

나) 감정은 이성에 앞선다.

기존 사고에서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질료에 지나지 않는다. 감정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잘못 제어하면 악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것이다. 스피노자는 혼란스러운 관념의 증대, 곧 감정의 증대가 심리 물리적 활동의 위축이고 인식의 결여에 기인하고 동시에 덕의 결여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칸트 역시 감정을 이성적 판단의 질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철학사를 지배하는 사고는 이성이 감정보다 인식론상이나 윤리적으로 우월한 것이라고 보았다.(조정옥, 40)

셸러는 이런 사고에 맞서서 감정이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곧 감정이 선천적 진리와 윤리적 선의 원천이다. 나아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위 방향을 결정한다.

셸러는 감정이 이성보다 우월한 측면을 인식론적, 윤리학적 측면에서 해명한다.

㉠ 인식론적 우월성

감정은 어떤 점에서 인식론적으로 우월성을 지니는가? 감정은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직관이다.

셸러에 따르면 인식은 근원적인 직관과 개념적인 사고의 일치Identifizierung이다. 곧 인식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이라고 지식으로 획득하는 것eine wissende Besitznahme von Etwas als Etwas, 직관된 것을 사고된 내용(개념과 판단)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Scheler, 1976, 128) 감정은 가치라는 본질에 대한 직관이고 이성적 사고에 앞서서 작용한다. 사고는 직관된 것을 사후적으로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Scheler, 1966, 68) 직관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 직접적 직관은 사실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므로 (상징이나 기호의 매개가 필요한) 간접적인 것에 머무르는 사고보다 우월하다. (Scheler, 1976, 248) 직관된 것은 사고에 의해서 검증되거나 반박될 수 없다.4)

쾌락을 낳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능동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산출한 타당

한 관념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조정옥, 32-3)

감정은 인식의 어머니이다. 셸러에게 감정은 일종의 비합리적 인식이면서 동시에 합리적 인식을 이끄는 것이다. 최고 단계의 감정인 사랑은 낮은 단계의 감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 의지, 행위를 이끈다. 가치 세계는 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 범위를 윤곽 짓는다. (존재의 바다에서 한 섬처럼 떼어낸다. (Scheler, 1957, 356)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경우에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가치 세계가 인식 세계의 범위를 결정한다. 인식 범위가 가치 세계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감정의 범위와 방향이 인식의 범위와 방향을 결정한다. (조정옥, 42-3)

그리고 인식은 사랑을 전제하고 사랑이 인식을 이끈다. "사랑은 인식하도록 촉진하고 이끄는 자명종이고 정신과 이성의 어머니이다." (Scheler, 1957, 356) "하늘이 푸르다"라는 인식은 나라는 존재가 하늘의 푸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식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자의 존재Sosein에 참여하는 일종의 존재관계이다. 이런 인식을 위해서는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존재자에게 건너가는 작용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상태, 의식 내용을 떠나는 자기 초월이 자신을 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옥, 43)

㉡ 윤리학적 우월성

셸러는 감정이 가치에 대한 선천적 직관이고, 이로부터 이성적 도덕 법칙이 비롯된다고 본다.

감정이 이성적 사고보다 근원적이라고 할 때 감정은 윤리적 인식에서도 사고에 우선한

다. 선이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나 행위에 들어있는 가치이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는 가치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물이나 사태의 가치, 가치 높낮이의 인식인 가치 느낌, 가치선호배척, 사랑과 미움 같은 감정은 도덕 인식이다. 이런 도덕 인식의 영역은 지적 판단과 명제 영역과 독립된 것이다.(Scheler, 1966, 88)5)

셸러는 감정이 의지를 선으로 이끈다고 본다. 감정에 의한 도덕적 인식이 의지와 행위를 선으로 이끈다. (같은 책, 87) 의지와 행위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의지는 가치 느낌이 주어져야만 맹목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도덕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Scheler, 1966, 87) 그는 (칸트의 주장처럼) 의무 의식에서 출발한 행위는 참된 의미의 도덕적 인식이 결여된 것이고, 참된 도덕적 인식 없이 의무에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은 참된 의미의 선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은 최고선이고,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사랑은 대상의 가치를 찾아내고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해서 대상의 이상적인 가치상에 이르는, 가치를 고양시키는Werterhoehung 운동이다. 셸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사랑을 옹호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서서) 모든 대상에 대한 모든 방식의 사랑을 우월한 선이라고 본다.6) (Scheler, 1973, 165; 조정옥, 45-6)

---

2) 인식은 사랑의 물음에 대해서 세계가 대답하는 것이고 대상이 자기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3) 스피노자는 감정을 혼란된 관념으로 본다. 셸러는 스피노자가 사랑을 기쁨과 같은 감정 상태로 본 점을 비판한다. 대상에서 오는 기쁨 없이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경우에도 사랑은 가능하고 진행되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대상이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경우에도 미움은 변하지 않는다.) (Scheler, 1973, 150) 그는 지향적 감정을 어둡고 혼란한 관념으로 보는 점도 비판한다. 그는 감정, 사랑, 미움은 사고와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작용이라고 본다. (Scheler, 1966, 268)스피노자는 감정적 직관의 내용인 가치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객관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가 인위적인 산물이고, 가치가 존재에 의존한다고 본다. 선악은 존재의 완전성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본다. (같은 책, 267) 스피노자는 인식이 감정을 규정한다고 보는 지성주의의 관점에서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제어하고 해방되는 것이 도덕적 지혜라고 본다. 셸러는 스피노자가 감정이 인식을 좌우하고, 감정 자체가 인식이며, 감정이 선으로 인도한다고 보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사랑과 미움이 능동적 자발성이라는 점, 게다가 사랑이 최고선이라는 점을 들어서 비판한다. 스피노자는 사랑과 미움이 외부원인에서 비롯된 수동성으로 보고 이것으로부터해방되고자 한다. 그에게서 사랑은 단순한 수동성일 뿐이고 외부 원인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사랑은 기쁨,

4) 감정은 선천적 인식이다. 셸러에 따르면 선천적인 것a priori은 (칸트가 주장하듯이 주관적인 형식이 아니라)인식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고, (주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직접 직관되는 것이고, (주관적 인식 형식이 아니라) 인식가능하거나 인식된 내용이다. 사고된 판단이나 명제도 선천적으로 직관된 사실에 의해서 충족될 때에만 선천적인 진리일 수 있다.감정은 가치라는 선천적 본질을 직관하는 기능이므로 이성적 사고보다 우월하다. 칸트가 인식의 요소를 감성이나지성으로 보는 것과 달리 셸러는 감성도 지성도 아닌 제 3요소로 감정을 본다. 칸트는 인간 정신을 감성과 지성으로 나누는 사고틀에 따라서 감정을 감각의 일종으로 보는데 그쳤다. (Scheler, 1966, 82; 조정옥. 42)

5) 칸트가 이론철학에서 아 프리오리를 판단 기능에서 도출하듯이 실천 철학에서 아 프리오리를 의지 기능에서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천적, 선천적 종합 판단인 도덕 법칙을 실천 이성에서 도출하는 것, 도덕법칙에서 선악이 파생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셸러는 도덕법칙이 선, 악의 일차적 감정으로 느껴지고 선천적으로 직관된 것을 이차적 사고를 통해서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가치 느낌은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 법칙보다 앞서 존재하고, 도덕법칙이 생기는 근원이다. 도덕 명령은 가치에서 출발하고 가치에 의해서 제약되고 가치를 목표로 삼아서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표)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선악은 도덕법칙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이 선악 가치를 기준으로 존립한다. (조정옥, 44) 무질서한 감각의 혼합에 형식을 각인하는 순수이성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중동의 다발에 법칙을 각인하는 실천

이성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Scheler, 1966, 72, 85) 실천 이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인식 능력이 아니다.

---

3. 사랑과 미움의 현상학

가) 사랑은 추구인가?

흔히 사랑을 갈망과 추구로 이해한다. 그런데 셸러는 사랑에 추구Streben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Scheler, 1973, 146) 사랑 작용은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움 작용도 어떤 것에 맞서서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한 추구와 달리 사랑에는 실현되어야 할 내용으로서의 목표Ziel가 결여되어 있다.

"환하게 피어오르듯이 잠자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신에 대한 사랑에서는 어떤 것이 실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술 작품을 사랑하는 경우는 어떤가?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수많은 추구, 갈망, 열망 등을 수반하지만 사랑 자체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심지어 사랑은 추구와 반대 법칙을 따른다. 추구는 그것이 만족되면 닳아 없어지고 안정되지만 사랑은 동일하게 머무른다. 또는 사랑은 사물에 보다 깊이 침잠한다는 의미의 작용, 처음에는 숨겨진 가치를 점점 더 환하게 내비친다는 의미의 작용에서 성장한다. 사랑의 작용에는 그 작용에 따른 만족과 행복 이외의 다른 만족은 의미가 없다." (Scheler, 1973, 146) 7)

셸러는 사랑과 미움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랑의 소극적 규정들과 적극적/긍정적 규정들을 제시한다. 이 두 측면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나) 사랑-미움의 소극적 규정들

㉠ 사랑은 쾌-불쾌나 행복-불행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불변적이다.

사랑에서 감정 상태들이 변하더라도 "마치 고요하고 확고한 빛줄기처럼 사랑과 미움이 대상 속에 머무르는" 점을 보면 그것은 감정 상태들의 변화에 독립적이다. (Scheler, 1973, 150) 셸러는 사랑하는 인간이 주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미워하는 인간이 주는 기쁨과 쾌락 때문에 그에 대한 미움이 변치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기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랑과 미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 대상은 온갖 기쁨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의 풍부한 근원"이다. 미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미울수록 그의 행복과 안녕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의 불운과 무가치함이 우리를 기쁘게 만

든다. 그럴수록 그는 온갖 고통과 온갖 기쁨의 풍부한 근원"이 된다. (Scheler, 1973, 150)

㉡ 셸러는 사랑과 미움을 감정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는 브렌타노가 사랑과 미움의 작용이 지닌 요소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사랑과 미움을 판단보다 근원적이라고 본 점을 수용한다. 브렌타노는 사랑과 미움을 감정 상태, 추구, 열정으로 보거나 그것들의 혼합으로 보는 심리학적인 오류를 거부한다. 8) 나아가 셸러는 사랑과 미움이 단순한 인식기능에만 관련되지 않고 가치 대상들과 관계 맺는다고 본다. "나는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Scheler, 1973, 151)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가치 평가처럼 거리를 둔 작용이 아니다. 가치평가는 평가 대상의 가치가 특수한 지향에서 눈앞의 현재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랑과 미움에는 그러한 '거리'가 없다. 사랑과 미움이 가치 내용에 대한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미움에는 가치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미움의 근거를 대라고 할 때 어찌할 줄 모른다. 그런 근거들은 사후적으로 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합리주의는 사랑과 미움이 눈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랑과 미움은 이성의 눈과 다

른 것들(가치들)을 보고 높거나 낮은 가치들을 본다. 사랑과 미움에는 이성의 명증성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명증성이 있다. (같은 책, 152-3)

사랑과 미움이 더 확실하고 순수하고 명료할수록 추구의 불안은 더 많이 해소된다. 사랑과 미움에는 실현되어야 할 어떤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

㉢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흔한 오해와 달리 사랑과 미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태도가 아니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을 지향하는 작용은 사랑에 필수적이지 않다. 시기, 위해를 가하는 것은 타인으로서의 타인을 지향한다. 이타주의가 다른 인간에 대한 태도,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도외시하려는 집착이라면 이런 사회적 태도는 사랑하는 태도, 호의적인 태도와 무관하다. 그런 도외시하는 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랑은 보다 근원적인 증오에 토대들 두고 있는 자기증오일 뿐이다. (같은 책, 153-4)

다) 사랑의 긍정적인 규정들

㉠ 사랑은 가치를 고양시키는 작용이다. 사랑은 대상의 보다 높은 가치로 상승하는 운동이다. 셸러는 사랑할 때, 한 대상이나 인격의 더 높은 가치가 빛나듯이 출현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미움은 이와 반대되는 운동이다. 미움은 보다 낮은 가치의 가능적 실존에 주목하고 더 높은 가치의 가능적 실존을 지양하는 데 눈을 돌린다.) 사랑은 가능적인 더 높은 가치를 정립하고 더 높은 가치를 보존하는가 하면 동시에 가능적인 더 낮은 가치를 지양하고자 한다. (미움은 가치 영역에 닫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적인 더 낮은 가치를 적극적으로 통찰하는 것이다.) (같은 책, 155-6)

㉡ 사랑은 자발적 작용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랑이 반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동시에 창조적 작용임을 의미한다.

사랑은 가치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다. 가치들의 높고 낮음은 가치들 간의 비교 없이도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도 베토벤을 브람스보다 선호할 수 있다. 선택은 행위 의지와 관련되고 대상 그 자체에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호는 두 가치를 전제하고 그 사이에서 선호가 일어난다. 사랑과 미움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랑은 한 대상의 주어진 가치에서 그 대상의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려는 지향 운동이다."(같은 책, 156)

사랑은 주어지는 가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주어진 사물 자체가 지니고 있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가치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대상의 "이상적인 가치상"을 지향한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의 긍정적인 가치들--아름다움, 우아함, 인격적 재능 등-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실재로서 이미 주어진 가치들과 더불어 가능한 보다 높은 가치들, 곧 이미 거기에 있었고 일어난 가치들보다 더 높은 가치들, 하지만 아직 긍정적

인 성질로 주어지지 않은 가치들에 대한 지향, 운동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존재한다."(같은 책, 156) 경험적으로 주어진 인격에 대한 사랑은 이상적인 가치상을 전제한다.

셸러는 사랑이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창조적 성격에 주목한다. 물론 사랑이 가치 자체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가치 느낌, 가치 수용과 관련해서) 사실 영역에서 '새롭고 보다 높은' 가치가 나타나도록 한다. (미움은 사실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없애고 그 결과 가치를 보는 인식적 선호와 느낌의 눈을 무디고 어둡게 만들므로 파괴적이다. 미움이 가치들을 소멸시키므로 미워할 때 가치들은 느껴지지 않는다.) (같은 책, 157)

㉢ 가치와 연관된 사랑과 미움

셸러는 사랑과 미움에서 가치 대상이 어떻게 주어지는 지를 살핀다.

가치를 고양시키는 지향작용과 함께 대상이나 가치 담지자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 이 때 보다 높은 가치가 실재하지 않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 가치상을 앞세워서 대상이 지니지 않은 새롭고 보다 높은 가치를 찾는다면, 그런 추구는 단지 충족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이다. 또한 사랑이 대상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려는 추구라고 할 수도 없다. (선하기를 바라거나 그를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그가 더 높은 가치를 갖도록 돕는 경우)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은 사랑 자체의 운동에서 마치 이상적인 가치상이 예시된 것처럼 생성된다. 그 가치상은 느껴진 것에 바탕을 두지만 경험적인 가치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9) (같은 책, 159-160)

사랑은 높은 가치 실현을 추구하지 않는다. 셸러는 사랑에서 보다 높은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려는 목표, 의지를 앞세운 목적 설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사랑 자체가 대상 속에 그때그때 보다 높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사랑의 운동과정에서 출현하게 끔 한다." 그 가치는 사랑의 대상 자체에서 사랑하는 자가 추구하는 활동이 없이도 "스스로 흘러나오듯이" 나타난다. (같은 책, 160)

(셸러는 이런 근본 현상을 왜곡,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미 존재하는 가치가 단지 포착된 것이라거나, 사랑은 단지 이런 가치들을 창조하고 의지적으로 산출하는 동기일 뿐이라거나,

사랑은 스스로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한다고 보는 경우들이 그렇다. 이런 경우들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책, 160))

셸러는 충동적인 열정 때문에 사랑이 눈멀게 된다는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보다 높은 가치들을 보는 정신적인 눈을 연다. 사랑은 그것을 보게 하지 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경험적인 감정에서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에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감각적인 충동일 뿐이다. 그런 충동은 사랑을 가로막고 제한한다. 사랑하면서 눈이 열린다--그것은 관심, 주목, 지각, 주시 등의 단계를 갖는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에서 더 높은 가치들을 억지스럽게 찾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의 오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들과 더불어 대상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의 진정성이 입증된다. (Scheler, 1973, 160-1)

자신이 찾는 가치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사랑을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서의 보다 높은 가치들에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다.(같은 책, 161)

사랑에서 문제가 되는 보다 높은 가치 자체는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그 가치는 "사랑의 운동에서" 비로소 마치 결말인 듯이 출현한다. 단지 (성질상으로 바뀌면서 규정되는) 가치의 보다 높은 쪽 방향만이 사랑 속에 숨겨져 있다."(같은 책, 161)

셸러는 사랑이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상이 지닌 가치들과 함께 대상 그대로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당위로서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너는 그러해야만 한다"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사랑의 본질은 파괴된다. 10)

사랑은 환영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인가? 셸러는 환영에 대한 사랑, 환영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사랑, 곧 타인에게서 보다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랑을 문제 삼는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사랑 대상에 투사하기 때문에 생

긴다. 그것은 대상이 지니지도 않은 가치들을 지어내고 사랑하는 대상을 꾸며낸다.

물론 그런 환영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감정과 관심에 대한 이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가 만들어내곤 하는 대상에 대한 과대평가, 떠받들기, 이상화 뒤에는 빈번하게 냉담한 타인이 존재한다. 그들은 대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개인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 (같은 책, 162-3)

"사랑만이 가치를 보는 눈을 민감하게 만든다." 그래서 서술할 수 없고 개념으로 번역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개인individiuum ineffabile의 본질은 사랑 속에서, 사랑에 따른 통찰에서만 완전하고 순수하게 드러난다. (같은 책, 163) (사랑하는 자는 타인들보다 더 많이 본다. 사랑하는 자야말로 객관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을 보는 자이다. 칸트처럼 실재성과 객관성을 단순한 보편타당성과 보편적 인정으로 격하하는 주관주의는 이런 점을 보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이상화 경향이 빚어진다. 그런 성향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 관심, 이념, 가치평가에 갇혀서 만들어 내는 사랑의 장애물이다. 그것은 편파적인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셸러는 (가치의 보다 높음으로 지향하는 운동인) 사랑의 근본 현상을 이해한다면 다음 주장을 받아들이리라고 본다.

"사랑은 가치를 지닌 각각의 구체적인 개별적 대상, 그리고 그의 이상적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최고 가치에 이르는 운동이며, 그에게 고유한 그의 이상적인 가치 존재에 이르는 운동이다." (Scheler, 1973, 164)

참고문헌

조정옥 (1999),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 막스 셸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Scheler, Max(1957) Gesammelte Werke, Bd. 10 Bern.

_____ (1966),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Bern.

_____ (1970), Liebe und Erkenntnis, Bern.

_____ (197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erlin.

_____(1976), Spaete Schriften, Bern.

Spinoza, B. ETHICA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aetbuchhandlung, 1972.

---

6) 이런 관점은 인격적 사랑을 덕 자체로 본 아리스토텔레스, 신에 대한 지성적인 사랑과 인식을 최고선으로 본스피노자, 타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도덕적 의무라고 본 칸트와 부분적으로 합치된다.

7) 사랑이 추구가 아니라고 할 때, 추구는 사랑하는 대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거나 만들려는 시도, 교육을 통해서 대상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이런 시도가 동반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충족되지 못한 사랑이다.

8) 셸러는 사랑과 미움을 도덕적 인식의 근원에서 選好排斥Vorziehen Nachsetzen과 동일시하는 브렌타노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대상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사랑을 사라지게 만드는 교육적인 태도를 끌어들인다. 개선의지는 해당하는 자의 이미 존재하는 모습과 그렇게 되어야할 모습을 분리시키는데, 사랑은 이런 분리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사랑에는 그런 분리가 없다. 사랑은 경험적인 가치 사실과 이상적인 가치 상 사이를 분리하지 않는다.

10) 셸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를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이 말을 ""우리는 대상에서 느끼는 가치들과 함께 대상들을 사랑한다" 또는 "대상을 통해서 가치들을 사랑한다"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격은 사랑에 속하는 운동의 성격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존재는 대상의 이상적인 존재로서 실존적인 경험적

존재도 당위 존재도 아니다.-